

[40~42] 고전시가 - (가) 정철, '어와 동량재를~' / (나)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작품해설 : (가)는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만을 일삼으며 나라의 인재들을 모함하고 내치던 세태를 풍자한 시조이다. '동량재'는 나라의 유능한 인재가 가리키고, '못 목수'는 당쟁을 일삼는 무능한 정치가, '기운 집'은 위태로운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주제] 조정의 혼란 속에서 인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겪은 뒤 명신 이원익이 지은 가사로 알려져 있다. 허전이 지은 '고공가'에 화답한 가사로 '고공답가(雇工答歌)'라고도 한다. 허전의 '고공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관리들을 대가집의 머슴들에 비유하여 주인의 무너진 살림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머슴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나태하고도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4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에서 연쇄의 표현 기법이 쓰였고, (나)의 3-4행에서는 '뉘라셔 곳쳐'가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연쇄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3-4행, '뉘라셔 곳쳐이며', '뉘라셔 곳쳐 쓸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동량재(나라의 인재)', '기운 집(어려운 지경에 놓인 나라)' 등 직유가 아닌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옥 곱튼 얼굴'과 같은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마누라(임금)'가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끼 꼬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본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이어지는 구절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릴/꺼릴 뿐이로다)'로 볼 때, '바깥 마름'이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② '불한당 구멍 도적'이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③ 화자는 임금이 하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니 주인'을 설득의 대상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⑤ 화자는 주인이 '상벌'을 밝게 하기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벌'을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는 ‘동량재’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한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는 ‘기운 집’을 바로세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하인들(신하들)과 주인(임금)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험에 놓여 있지만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를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의논’은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당쟁을 꼬집는 말이므로, 국가 대사를 위한 대책인 (나)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관심은 많으나 당쟁을 일삼는 이들을 가리키고, (나)의 ‘험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⑤ (가)의 여러 목수들은 ‘고자 자’를 들고 입씨름만 하고 있을 뿐 집을 바로 세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의 ‘문혀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가리킨다. ‘고자 자’와 ‘문혀진 담’이 외세의 침입에 협조한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3-45] 현대시 -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해설 : (가)는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개벽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

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4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에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5.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쉬는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